梨峙대첩지 국가사적 지정 토론회

3월 6일 금산 다락원 소강당에서 열려

▲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김상기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박동철 금산군수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임진왜란시 충장공忠莊公 권율權慄 장군이 1천5백 병력으로 왜군 최정예 소조천융경小早川隆景의 2만군을 궤멸시킨 이치대첩지梨峙大捷址를 국가사적지화하려는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충남 금산군 금산읍 소재 금산다락원 생명의집 소강당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여에 걸쳐 열렸고 주최는 대전에 있는 충청투데이 신문사에서, 후원은 금산군에서 하는 것이었다.

1592년, 임진년 7월 영남과 충청도를 휩쓸고 경기지역도 석권한 왜적은 군량의 현지조달을 꾀하여 소조천융경(고바야가와 다까가께)이 정병 2만을 이끌고 배티라고도 하는 이치의 큰 재를 넘어 조선의 곡창 호남으로 진출하려 했다. 이에 맞서 광주목사光州牧使이던 권율 장군은 동복현감同福縣監 황진黃進 등과 함께 1천5백 병력으로 이치의 험애한 지형을 이용해 결사의 방어진지를 구축해 놓고 기다렸다. 왜군은 병력의 우세함과 소향무적에 승승장구의 전력만 믿고 단숨에 이 재를 넘으려고 맹공을 가했다. 지장 권율군은 10분의1 병력으로 이에 맞서 오전鏖戰을 벌여 적의 예봉을 꺾고 그 대오를 궤멸·패주시키는 대승을 거두니 거의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은 적은 다시는 호남으로 진출할 엄두를 못내게 되었다. 이 대첩은 행주幸州와 진주晋州에 앞서는 임진왜란 최초의 육전 대승첩이었다.

그런데 어째선지 이 이치대첩은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거듭하여 소홀히 다루어지고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첩지가 성역화는 커녕 국가 사적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충남도 기념물 제154호로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2000년 9월 20일에야 겨우 이루어진 바였다. 현재의 이치대첩지는 위와 같이 도기념물로 지정된 금산군 진산면 묵산리 산 79-34번지 외 6필지이고 여기에 충장사忠莊祠와 이치대첩비 및 내외삼문內外三門 등의 건조물이 있는 정도이다. 그동안 이치대첩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큰 행사는 10년 전 1999년 12월 25일에 대전의 충남대 강당에서 있은 학술회의 한 차례였다.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 규명'이라는 주제로 충남대 백제연구소가 주관하여 학술발표회를 열었고 이를 계기로 금산군에서는 동 백제연구소 발행의 '임진왜란과 이치대첩'이라는 책자도 제작해 배포했다. 그리고 2004년에도 금산군에서는 '금산의 임진왜란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해 이치대첩을 알린 바 있었다. 그리고 근년 들어서는 매년 8월 26일을 정일定日로 하여 군민 전체가 참여하는 이치대첩기념제를 군단위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충남대 사학과 김상기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오고, 토론자로는 전 금산군수로서 현 아산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명수씨와 육군본부 군사연구소의 장삼열 한국전쟁 과장, 충남역사문화원의 변평섭 원장과 박동철 금산군수가 나왔으며 토론진행자는 충청투데이 박건옥 주필, 전체 사회자는 충청투데이의 김혁수 남부본부장이었다. 15시에 개회가 되어 국민의례와 내빈소개가 있고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의 대회사, 박동철 금산군수의 환영사, 이명수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15시 20분부터 17시 2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김상기 교수의 '이치대첩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와 그에 따른 토론이 있었고 이를 마치고는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10여분 배정시간으로 있은 다음 폐회하였다.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은 대회사에서 '이치대첩지만 국가 사적지 지정이 안되어 유감이다. 후손들의 고증이 부족해서일 것이다. 오늘 여기 오신 이명수 의원이 문화재청장을 만나 이야기하였고 장삼열 육본 과장도 오전에 현장을 직접 둘러보았는데 좋은 평가를 내려주시길 바란다. 이치는 역사적으로나 전사적으로나 비중이 매우 큰 곳인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오늘 학술토론회로 이치대첩지가 새롭게 조명되고 군민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결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요지를 말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환영사에서 '이치를 국가사적지로 만들지 못한 데 대해 금산군수로서 죄송하다. 사적지 지정이라는 게 뚜렷한 유물이나 유적이 있어야 하는데 원래 전적지에 그런 유물이 있는 게 아닌 것같다. 또한 이치대첩지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크고 현재 묵산리 충장사가 자리한 곳 일대가 사유지여서 이 또한 여의치가 않은 점의 하나이다. 발굴조사 등도 선행해야겠지만 선조수정실록이라던가 난중잡록·만취당실기 등 문헌기록을 가지고도 사적지 지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도 해보아야겠고, 행주대첩지와 진주대첩지가 다 자연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도와 문화재청 당국에 전략적 접근을 해서 추진하겠다. 이 일은 금산군 지자체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기획하여 국민의 정신교육장으로 성역화되어야 하며 군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만족공동의 자산인 이곳 문화유산이 승화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축사에서 '금산에 근무하면서 언젠가 국가차원에서 이치를 성역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루지 못했고 지금 이곳에 있어야 할 텐데 다른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금산의 봄은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내게 지역구가 있지만 그런 차원을 떠나 별도의 과제로 하겠다. 오늘 이 토론회가 수백년 전 우리를 위해 싸운 선조들께 위로가 되고 내일의 후손에게도 역사의 유산을 물려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하였다. 변평섭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다른 토론회에 가보면 지역개발과 경제문제를 주로 가지고 하는데 금산은 역사문제를 가지고 학술토론을 벌이는 것이 이채롭다. 역사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역사가 없는 개발논리와 경제제일주의는 자못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임란 때 이치에서 권율 장군이 호남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없었다. 6·25때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치대첩지가 국가의 명운에 중요했음을 상기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육본의 장삼열 과장은 '이치대첩의 이처럼 훌륭한 전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히 잘될 것같다. 군사적으로 우선 높은 평가가 나오도록 터닝포인트를 만드는 일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치대첩은 세계전사상에도 드문 이소제대以小制大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육사생도의 답사 코스에서도 이치대첩지가 더욱 필수코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이곳을 안보관광지로서 금산군이 패키지화하여 7백의총과 연계함은 물론 인삼 등 생태적인 것과 연관해서 하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요지를 말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인 주제발표에 나선 충남대 김상기 교수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학계에서 인정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한 학자가 4인 정도이고 본격적인 연구 논문을 저술한 것은 본인 혼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빈약하여 우선 논문부터가 더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 하였다. 김교수의 주제발표 논문 '이치대첩의 전개와 역사적 의의'는 책자로 유인이 되어 그 내용이,

1. 머리말
2. 왜군의 금산성 침입
3. 전주성 방어선의 편성

▲ 6인의 패널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